

문화/생활

공연/전시

덤불로 속살 감춘 곳자왈 겨울풍경, 그림으로 만나다

기사등록 일시 [2014-12-15 07:59:06] 최종수정 일시 [2014-12-15 08:11:57] [인쇄하기](#) [이메일](#) [크게](#) [작게](#)



이광호 'Untitled 0420'(100×100cm, Oil on canvas, 2014) <사진 = 국제갤러리> 2014-12-15

【서울=뉴시스】유상우 기자 = '선인장'과 '인물 시리즈'를 통해 객관적 대상에 주목해온 이광호(47)가 풍경, 그 중에서도 숲을 더듬었다.

그가 포착한 풍경은 인적 없는 제주도 곳자왈이다. 그곳의 낮 풍경과 눈이 아직 녹지 않은 축축한 느낌의 덩불, 어스름 빛이 내린 새벽녘의 숲 등을 화폭에 옮겼다. 화면 속 숲은 양상한 가지들이 드러난 겨울 모습이다.

그가 숲에 주목한 이유는 특별하지 않다. "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은 욕구 때문"이라고 했다. "개인적으로 숲을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그림이 된다"는 그는 "선인장 같은 경우는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에 객관적 대상에 주관적 해석을 가미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. 그러나 숲은 막막하고 무한한 정도가 선인장이나 인물보다 훨씬 더 광활해 화가로서 도전의 폭도 무한하겠다고 생각했다"

고 설명했다.



이광호 'Untitled 6929'(120×100cm, Oil on canvas, 2014) <사진 = 국제갤러리> 2014-12-15

겨울 숲을 그린 것은 숲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. 그는 “여름에는 가지에 얽히 돌아
덩어리가 된다. 즉, 나무의 구조 자체가 가려진다. 그러나 겨울에는 그런 구조들이 모두 드러나
므로 그리기에 더 흥미롭다”고 밝혔다.

화폭에 담긴 숲은 같은 장소를 시간의 변화에 맞춰 10여 번 이상을 찾으며 관찰한 결과물이다.
“같은 장소지만, 찾을 때마다 다른 느낌을 받았다”는 그는 “날씨에 따라, 나의 그 날 심리상태에
따라 색다른 모습을 뽐어내는 숲에 매료됐다”고 했다.



이광호 'Untitled 1304'(173×150cm, Oil on canvas, 2013) <사진 = 국제갤러리> 2014-12-15

그는 일정 시간을 두고 같은 곳을 찾게 되면서 전에 기억했던 숲과 달라진 부분들을 발견하기도 했다. 썩어가거나 사라진 나무들..., 그런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는 재미도 붙였다.

그는 낮보다도 밤 풍경에 더 애착을 느낀듯했다. 그는 "밤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밤에 숲을 관찰했는데 보이는 게 없었다. 보이지 않으니 다른 감각이 작동했다. 온도, 소리, 냄새 등을 경험했는데 '그것을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까'라는 걱정도 했다. 무모한 도전이었다"며 "심리적으로도 두렵고 공포감도 느껴 오래 있질 못했다"고 엄살을 떨기도 했다.



이광호 'Untitled 1303'(130×135cm, Oil on canvas, 2013) <사진 = 국제갤러리> 2014-12-15

밤의 숲은 자신과 대면하는 순간이기도 했다. 그는 “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. 그런 느낌을 밤 풍경으로 풀어냈다”고 덧붙였다.

밤 풍경은 숲 속에서 헤매듯이, 더듬거리면서 그렸다고 했다. 그는 “밤 풍경은 완벽하게 구상하고 그리지 않았다. 부분적으로 들어갔다.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되면서 점점 이미지가 나오게 된다”면서 “작품이 끝날 때쯤 ‘아, 내가 이런 것을 그리고 있구나’라는 생각과 함께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”고 말했다.



화가 이광호, <사진 = 국제갤러리> 2014-12-15

이광호가 촉각적이고 심상적인 풍경을 탐구한 작품 21점을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16일부터 소개한다. 그가 풍경으로 들어가 뒤엀킨 녁쿨과 잔가지 속에서 구획된 대상이 아닌 겨울 숲 풍경 자체의 분위기를 풀어낸 작품들이다. 속도감 있는 붓질과 중첩된 터치, 부드럽게 뭉개지거나 날카롭게 긁어낸 윤곽선 등은 곳자왈의 겨울 풍경 맛을 더한다.

전시는 '그림풍경'이란 제목으로 내년 1월 25일까지 열린다. 02-735-8449

swryu@newsis.com